



한국외교 60년

제5장

문화외교

제1절 1950년대 문화외교의 기틀 형성 | 285

제2절 1960-1970년대 문화외교의 다변화 | 286

제3절 1980년대 국제 스포츠대회 유치와 성과 | 290

제4절 1990년대 문화외교의 지평 확대 | 294

제5절 2000년대 세계와 소통하는 우리 문화외교 | 299

제5장 문화외교

정부 수립 후 한국의 문화외교는 민간보다는 정부가 각종 문화교류를 주도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전후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느라 문화교류 분야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주변 여건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부터 정부의 수출주도형 공업화를 통한 경제 자립 달성 노력에 발맞추어 외교망을 대폭 확장하는 한편 문화외교를 활발히 펴 나가기 시작했다. 특히 1970년대에 들어 국가의 안보 및 경제외교를 강화하는 동시에 문화외교를 적극 추진하여 우방 제국과의 우호관계를 심화시켰다. 1980년대에 들어서는 한국은 1986년에 제10회 아시안게임, 1988년에 제24회 서울 올림픽게임과 제8회 서울 장애인 올림픽게임을 개최하였는데, 이는 신장된 국력을 바탕으로 한 체육외교의 커다란 결실이었다. 서울 올림픽게임은 사상 최대 규모의 국가와 선수가 참여하였고 동서 화합과 올림픽게임 이념을 구현하여 세계적 긴장완화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냉전 종식 이후 1991년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 가입 등으로 한국은 외교활동 기반을 새롭게 다지게 되었으며, 문화외교도 마찬가지로 되었다. 특히 1992년에는 세계 각국 간의 각종 교류사업 시행 기관으로서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이 설립되어 문화외교의 제도적 틀이 갖춰지게 되었다.

2000년대는 문화외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크게 제고된 시기인데, 정부는 한국 문화외교의 지평을 더욱 확대하고 방법을 다변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이와 같은 노력은 기본적으로 '양자협력'과 '다자협력'의 양 측면에서 상호유기적·보완적으로 추진되었다. 문화협정 체결, 문화공동위원회 개최, 주요 국가와의 종합적 문화교류행사 추진 등 기존의 양자협력과 더불어, 한국 문화와 국가이미지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공연단 파견, 재외공관 문화전시장화 사업, 한국학 지원 등 다양한 사업들이 시행되었다. 또한 정부는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를 통한 문화 분야의 국제적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긍정적 이미지를

구축하였다. 아울러 체육외교 강화에도 중점을 두어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성공리에 치러낸 데 이어 2011년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년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2015년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의 유치에 성공하였다.

제1절 1950년대 문화외교의 기틀 형성

1. 문화 소개 간행물의 발간 및 배포

정부 수립 이후 1950년대에 걸쳐 정부는 국가 재건이라는 시급한 과제에 직면하여 이를 풀어가기 위한 방향에 외교력을 집중하는 한편, 한민족의 문화를 대외적으로 소개하고 한국의 대외적 이미지를 부각하고 개선하는 데 역점을 두고 문화외교를 전개하였다.

이러한 목적에서 이 기간 중 정부가 발간한 한국 문화 관련 각종 자료 및 간행물로 ‘Korea Today’, ‘Korean Arts’, ‘Korean Survey’ 등이 있었다. 이와 함께 정부에서는 영자 일간지 ‘Korea Times’를 대량 구입, 해외 공관을 통하여 각국의 주요 기관과 인사들에게 정기적으로 배포하였고, 민간이 발행의 영자 월간 화보 ‘Pictorial Korea’도 구입·배부하였다.

2. 문화관계 전시회 및 인적 교류

정부는 1955년도부터 14회에 걸쳐서 해외의 각종 문화 전시회에 적극 참가하였다. 또한 미국 스미소니언 박물관(Smithsonian Institution)에 한국 전통 혼례 복을 기증하여 진열토록 하였고, 주요 공관에 공예품, 인형 및 고유 한복, 고적 및

풍물 사진, 민요 음반, 영화 필름 등을 송부하여 각종 행사에 이용하도록 하였다.

1947년 최초의 유학생 3명이 도미한 데 이어 1948년 8월에는 6명의 국비 유학생이 처음으로 미국에 파견되었다. 호주 언론인 9명, 미국의 흑인 가수 마리안 앤더슨(Marian Anderson), 미국 선교사 빌리 그레함(William Franklin Graham) 등의 방한이 있었고, 1950년대 후반부터 점차 많은 외국의 각계 인사들이 내한하였다.

1958년 2월 정부는 한국에 대한 동남아 각국의 인식을 높이고 친선과 반공 유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136명으로 구성된 친선예술사절단을 동남아에 파견하여 중화민국, 홍콩, 태국, 싱가포르, 필리핀, 오키나와에서 공연하도록 하였다. 이 사절단은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사진 및 미술 작품의 전시, 그리고 해병 의장대의 시범행진 등으로 방문 각국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3. 체육을 통한 교류

1948년 12월 4명의 선수를 세계 빙상선수권대회에 파견한 이래 1956년 말까지 각종 국제 경기대회에 약 22회에 걸쳐 선수단을 파견하였으며, 6회에 걸쳐 외국 선수단이 내한하여 국제경기를 가졌다.

제2절 1960-1970년대 문화외교의 다변화

1. 학술 및 문화교류

한국은 1965년 한·일 간 문화재 및 문화협력협정을 체결한 이래 아시아 지역

7개국, 유럽 지역 5개국, 미주 지역 15개국 및 아프리카 지역 8개국 등 39개국과 문화협정을 체결하였다. 우리 정부는 해당 각국과의 상호 협조 아래 각종 학술·문화행사를 개최하여 우호관계를 증진하였으며, 이 밖에 한·미 교육교환 협정 등 9개의 기타 문화관계협약도 체결하였다.

한편, 정부의 주도로 1968년 10월 서울에서 아시아·태평양 각료이사회(ASPAC: Asian and Pacific Council) 사회문화센터가 정식 창립되어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각국과의 문화·학술교류와 협력을 증진시켜 왔다. 그간 이 기구를 통한 활동과 업적은 장학생 교류, 아시아·태평양 지역 각국 아동용 교재 발간, 문학 작품 번역 및 보급, ASPAC 세미나, 사회개발 문제 및 기타 세미나, 문화제 및 박물관 관계 사업, 영화제 개최, 출판 사업 및 전시회, TV 관계자 회의, 음악인 대회 등이다.

우리 정부는 국제 음악회, 아시아·태평양 민속예술제 등 각종 문화행사를 서울에서 개최하고, 국제 펜대회, 세계 작가대회 등 주요 학술회의를 유치하는 한편, 해외에서 개최되는 각종 문화행사에 적극 참여하였다. 또한 정부는 유학생을 외국에 파견하여 선진국의 최신 학문과 기술을 도입해 오는 한편, 각국으로부터 국비로 유학생을 초청하여 국내 각 대학에서 수학하도록 하여 상호이해 증진과 친한 인사의 확보에 주력하였다. 정부가 1978년 말까지 외국 학생을 국비로 초청 수학시킨 실적은 총 56명에 달하였다.

2. 민간외교의 지원 육성

우리 정부는 등록된 국내의 81개 민간외교 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을 지도·감독하여 민간외교 활동을 활발히 추진해 나가도록 육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 이미 설립되어 있는 165개의 친한 단체의 사업을 지원하여 각국과의 민간외교 활동 확대에도 주력하였다.

또한 세계 각국과의 청소년교류를 통한 민간외교에도 힘을 기울였는데,

이 중 대표적인 것으로 1971년 8월 제5차 한·일 각료회의 합의에 의거한 양국 대학생 교류를 들 수 있다. 이 계획에 의거하여 매년 20여 명의 양국 대학생 대표단이 10일간 상대국을 상호 방문하여 두 나라 국민 간의 우호협력관계 증진과 상호이해 증진에 기여하여 왔다.

이 밖에 1977년 6월에는 우루과이 대학생 대표단 32명이 방한, 한국 고등 교육기관, 박물관, 고적 등을 방문하여 양국 간의 학생 교류를 통한 상호이해 및 우호 증진에 공헌하였다.

3. 체육을 통한 교류

우리 정부는 국력 신장과 국민의 체위 및 경기 수준의 향상을 위해 각종 국제 경기대회에 우수 선수를 계속 파견하여 국위를 선양하고 국제 친서에 괄목할 만한 기여를 해왔다. 그 당시 국제 스포츠계에는 북한, 중국은 물론 비동맹 제국의 진출이 현저하고 국제 스포츠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례가 많아졌다. 정부는 일찍부터 체육외교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이를 강화해 왔으며, 특히 6.23 평화통일 외교정책 선언 이래 공산 국가를 포함한 모든 나라에 문호를 개방하고 보다 적극적인 체육교류를 통한 이해 증진과 유대 강화에 힘썼다.

한국이 제3공화국 수립 이후 1969년 말까지 올림픽계임을 비롯하여 각종 국제 대회에 참가한 횟수는 30여 회에 달하였다. 특히 한국은 1970년 8월 제1회 아시아 청소년 농구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한 이래 13회에 걸쳐 각종 경기대회를 유치하여 참가국과의 선린·우호관계 증진에 기여했으며, 1971년 5월 제1회 대회를 가진 대통령배 축구선수권대회는 1978년 제8회 대회까지 치러졌다. 1978년 8월 서울에서 개최한 제42회 세계 사격선수권대회에는 70여 개 나라에서 1,5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어 국위 선양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4. 기타 문화교류 사업

가. 자매결연을 통한 교류

1970년대에 걸쳐 국내 31개 지방자치단체가 총 12개국의 38개 시·군과 자매결연 하였다. 이 밖에 우방국의 각급 학교와의 결연도 활발히 진행되어 1976년 10월 서울 덕수 국민학교와 아르헨티나의 제20학구 제18초등학교를 ‘대한민국 초등학교’로 정식 명명하였다.* 1976년 11월에는 덕성여자대학이 일본 문화대학과, 같은 해 12월에는 평택의 한광여고가 중화민국의 복단 중·고등학교와 각각 결연하여 상호 이해와 우호 증진에 이바지하였다.

나. 순국선열 및 전몰 유엔장병 추모 사업

이준 열사의 순국 70주년에 즈음하여 정부는 헤이그(Hague)에 있는 열사의 묘소를 확장 정리하고, 한국 석재로 국내에서 제작한 흉상을 새로 건립하여 1977년 10월 제막하였다. 또한 정부는 1977년도부터 부산 유엔 묘지에 참전 16개국의 전몰 군장병 위령탑의 건립과 유엔 묘지 주변 미화 사업을 추진하여 1978년 10월 제막하였다.

* 학교 명칭과 관련, 정부는 1996년 3월 1일 3.1절 77주년을 기해 일제 강점기인 1941년 공포되어 55년 동안 사용해 오던 ‘국민학교’라는 명칭을 일본 제국주의 잔재를 청산하는 차원에서 ‘초등학교’로 변경하였다.

제3절 1980년대 국제 스포츠대회 유치와 성과

1. 제10회 아시안게임

제10회 아시안게임이 1986년 9월 서울,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의 6개 시·도에서 27개국 4,839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가운데 95개 종목(169개 세부 종목)의 경기와 문화 예술 축전, 국제회의의 등 다채로운 행사로 전개되었다.

그리고 대회를 전후하여 32개의 크고 작은 문화행사를 펼쳐 한국의 전통 문화를 소개하여 자부심을 높였음은 물론, 함께 모인 문화 예술의 광장에서 아시아인으로서의 일체감과 영원한 우정을 굳게 다지기도 하였다.

1970년 제6회 아시안게임을 유치하였으나 국내 사정으로 반납한 바 있는 한국은 제10회 아시안게임을 맞이하여 훌륭한 시설을 마련하고 최신 장비 및 첨단기술을 동원하는 등 건국 이래 최대의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 '세계 속의 한국'을 부각시키는 좋은 계기를 마련하였다.

더욱이 한국은 이 대회에서 만년 3위의 자리를 벗어나, 아시안게임 연패를 자랑하던 일본을 제압하고 중국과 대등한 경쟁을 벌려 세계 체육 강국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였다. 또한 북한의 집요한 방해와 책동에도 불구하고 76개국에서 선수단, 대표단, 보도진 등 1만여 명이 참가하여, 체육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외교 면에서도 협력을 강화·확대하는 결실을 얻었다.

한국은 이 대회에서 인류의 축제인 서울 올림픽게임을 어느 올림픽게임보다 성공적으로 치러낼 수 있다는 자신을 얻었으며, 또한 세계인도 서울 올림픽게임의 성공에 대하여 확고한 신뢰를 갖게 되었다.

특히 서울 아시안게임에서는 세계 기록 13개, 아시아 기록 98개, 대회 기록 256개 등 모두 367개의 많은 기록이 수립되어 아시아 스포츠의 높은 수준을 세계에 과시하였으며, 그중 많은 세계 기록을 한국 선수들이 갱신하여 한국

스포츠가 세계 수준에 달하였음을 보여주었다.

이 대회 of 종합 성적 1위는 금 94개, 은 82개, 동 46개로 도합 222개의 메달을 딴 중국이 차지했으며, 금 93개를 차지한 한국과 금 58개를 차지한 일본이 각각 2위와 3위를 기록하였다. 또한 이 대회는 대회의 조직·운영 등 모든 면에서 올림픽게임 수준으로 추진되어 아시안게임 사상 가장 성공적인 대회라고 평가되었다.

2. 제24회 서울 올림픽게임

가. 대회 유치 및 성과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의 국내 정세는 정치적인 혼란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직면했고, 국제정세도 긴장이 고조된 상태였다. 특히 미국 등 서방 60여 개 나라들이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에 항의하여 제22회 모스크바 하계올림픽게임에 불참하여 올림픽게임은 또 한 차례 정치적 시련을 겪었다.

올림픽 추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는 올림픽게임 유치에 대한 찬반 양론이 벌어져 명분 있는 포기 방법이 논의되는 등 소극론까지 대두하였다. 그러나 1981년 제3차 대책회의의 결정에 따라 실무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유치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한국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총회에서 서울 전시관에 대한 호평과 제안 설명에서의 성실한 답변 등으로 많은 부동표를 흡수하게 되었고, 투표 결과 57:27의 득표로 나고야를 제치고 서울 유치가 확정되었다.

정부는 올림픽게임 사상 최다수국의 대회 참가를 실현하기 위하여 특히 미수교국의 참가 유도에 역점을 두고, 한국의 문호개방 정책과 서울 올림픽게임의 이념인 화합과 전진을 널리 소개하고, 제89차 IOC 총회에서 모든 국가 올림픽위원회(NOC: National Olympic Committee)의 대회 참가를 약속하는

‘로잔느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1986년 4월의 제5차 아시아 올림픽평의회 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하여 국제 스포츠 기구 및 회원국으로부터 확고한 지지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유치 활동의 결과 초청장을 받은 167개 NOC 중 161개국이 당초 참가를 통보하여 왔는데(불참 예정국은 북한, 쿠바, 니카라과, 에티오피아, 세이셸, 알바니아 등 6개국), 마다가스카르가 국내 사정으로 불참하게 되어 30개 미수교국을 포함하여 160개국이 참가하였다.

환호와 우려가 교차되는 가운데 준비된 서울 올림픽게임은 1만 3,303명의 선수·임원이 참가하여 올림픽게임 사상 최다 인원 참가 대회가 되었다. 한국은 국내외 동포들의 성원과 지지 속에 금메달 12개를 비롯한 33개의 메달 획득으로 기대 이상의 종합 4위를 달성하였다. 서울 올림픽게임에는 연인원 60만 4,520명의 대회 운영 요원이 참여하고 대회 16일간 23개 종목에 9,417명의 선수가 출전하여, 쾌적한 경기 시설에서 세계 신기록 33개와 세계 타이 기록 5개, 그리고 올림픽게임 신기록 227개를 달성하였다.

서울 올림픽게임은 350만 명이 경기를 관람하고, 123개국의 1,583개 언론사, 66개국의 128개 방송사에 의해 9,200시간 동안 위성 중계되어 40억 세계인의 관심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하였다. 뿐만 아니라 대회를 전후하여 8월 12일부터 10월 5일까지 50일간 총 41건의 문화 예술 행사에는 미수교국을 포함하여 73개국의 469개 단체 2만 8,813명(외국인 2,401명)이 참가하여 208개 프로그램을 632회 공연하고 948만 643명이 관광하였으며, 청소년 캠프에도 43개국 882명이 참가하였다.

지구촌의 ‘화합과 전진’을 구현하는 이론적 토대를 마련할 목적으로 서울 올림픽게임 국제학술대회가 개최되었으며, 스포츠 과학 진흥과 스포츠 과학의 국제교류 및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여 스포츠 과학 학술회기도 개최되었다.

서울 올림픽게임의 개최는 대회 운영과 경기장 시설 및 인력 관리의 전산화를 통하여 관련 기술을 축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회

진행에 필요한 각종 전자기기는 최대한 국산품을 사용토록 한 결과 국내 기술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였다.

외교적 성과로는 서울 올림픽게임에서 냉전시대의 동서 모두가 한자리에 모이게 되어 세계의 긴장완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과, 무엇보다도 헝가리와의 수교를 포함하여 중국, 소련 및 동유럽 국가들과의 경제·문화교류와 협력을 증진하는 등 북방외교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또한 서울 올림픽게임은 한국과 제3세계 국가들과의 외교기반 확충에 기여하였는데, 특히 미수교국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킴으로써 접촉의 확대를 기대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성과가 컸다고 하겠다.

3. 제8회 서울 장애인 올림픽게임

제8회 서울 장애인 올림픽게임은 제24회 서울 올림픽게임에 이어서 1988년 10월 15일부터 10월 24일까지 10일간 서울과 경기도에서 개최되었는데, 올림픽 게임과 동반 개최된 장애인 올림픽게임은 이것이 처음이었다.

장애인 올림픽게임에는 16개 경기 종목에 61개 국가(옵저버: 알제리)가 참가했는데, 그 중에는 북한의 단독 수교국 8개국도 포함되었다. 참가 인원은 총 7,369명으로, 선수 3,053명, 임원 및 보호자 1,167명, 심판 687명, 보도진 2,368명, 국제기구 요원 100명이었다.

한국은 금 40개, 은 35개, 동 19개 등 94개의 메달을 획득, 7위를 차지하였다. 연인원 50만 명 이상이 관람한 이 대회는 올림픽게임 개최 경험을 바탕으로 원활한 경기 운영을 하여 장애인 올림픽게임이 진정한 장애자들의 스포츠 제전으로 정착되었고, 서울에서 처음 장애인 올림픽게임기가 채택되었다.

이 대회의 의의와 성과는 장애인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과 이해 증진, 장애자의 참여 의지 및 참여도 제고, 장애인 복지 선진화의 계기 마련, 국제 장애인

체육계에서 한국의 지위 확보, 최다 국가 및 최다 선수단 참여로 장애인 올림픽 게임의 획기적 전기 마련, 올림픽게임 장비의 연계 사용으로 장애인 올림픽 게임의 새로운 모델 정립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제4절 1990년대 문화외교의 지평 확대

1. 문화협정 및 문화공동위원회

한국은 1990년대 들어 19개국과 문화협정을 맺음으로써 1998년 말 총 82개국과 문화협정을 체결하였다.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 14개국, 미주 23개국, 유럽 20개국, 중동·아프리카 25개국이다. 정부는 이들 국가들과 협정을 통하여 문화, 예술, 교육, 학술, 청소년, 방송, 언론 등 여러 분야에서 실질적인 교류 확대를 통한 상호이해 심화와 우호·친선 강화에 주력하였다.

양자 간 문화공동위원회는 1990년대에 28회 개최되었고, 1998년 말 한국과의 공동위원회를 설치한 국가는 중국, 일본, 러시아, 영국, 이스라엘 등 21개국에 이르고 있다. 이에 추가하여 방글라데시, 쿠웨이트, 이집트, 불가리아 등 8개국과는 문화교류시행계획서를 교환하였다.

2. 문화교류

1990년대의 문화교류 특색은 미국 및 유럽 등 선진국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를 대상으로 하여 활발하게 전개되었다는 데 있다.

정부는 국립예술단, 민속공연단, 금호 현악 4중주단, 현대무용단 등 문화·예술 단체의 해외 공연, 심청전, 장보고의 꿈 등의 뮤지컬 공연, 칸느·베를린 영화제 등 영화제와 축제 참가, 한국 영화 순회 상영 등을 적극 지원하여 한국 문화의 해외 소개에 주력하였다. 또한 정부는 한국 현대 미술전, 도자기전, 사진전 등 각종 해외 전시회 개최를 지원하는 한편 광주 비엔날레, 서울 국제 민속 축제, 여주 도자기 대축제, 고대 이집트 문명전 등 국내에서 개최된 국제 문화행사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하였다.

1990년대에 해외 박물관 내에 새로 설치된 한국 전시관은 뉴욕 메트로폴리탄 예술박물관(Metropolitan Museum of Art), 빅토리아 앨버트 박물관(Victoria and Albert Museum)의 한국 전시관 등 9개로서 1998년 말 총 30개 박물관 내에 한국 전시관이 설치되었다. 또한 국제교류재단의 지원하에 프랑스 기메 국립 동양박물관(Musée Guimet) 등 6군데에 추가로 설치를 추진하였다.

정부가 제안하여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에서 제정한 세종대왕상이 1990년부터 시상됐고, 1991년에는 ASPAC 사회·문화 센터가 국제 영화제를 한국에서 개최하여 7개국이 참가하였다. 그리고 신축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회의 센터에 수목화 1점을 기증했으며, 한국 문화재의 세계 문화유산 목록 등재를 추진했다.

정부는 한국 문화를 널리 소개할 목적으로 도쿄, 뉴욕, 로스앤젤레스, 파리 등 4군데에 문화원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한편, 서울에는 7개국이 문화원을 설치하여 각국의 문화를 소개하고 있다.

정부는 한국 문화의 해외 소개 및 홍보를 통해 국가 이미지 제고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외국 우수 문화를 개방적으로 수용하여 한국 문화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사회 전체의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슬로바크 민속 예술단, 텐진 잡기 예술단, 이스라엘 필하모닉 등의 내한공연과

한·중 수교를 기념한 명청(明清) 회화전의 서울 개최 등 주요 교류행사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지원하였다.

1990년대에는 해외에 흩어져 있는 몇 안 되는 한국 문화재의 보존에 관한 관심이 고조된 시기였다. 1993년에는 상하이와 충칭에 소재하는 한국 임시정부 청사가 중국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었고, 상하이 청사는 같은 해에, 충칭 청사는 1995년에 각각 복원되었다.

그리고 안익태 기념 재단이 1992년에 발족되었는가 하면, 이준 열사가 사망한 장소인 네덜란드 헤이그 시내 소재의 드용 호텔의 복원을 추진한 결과, 1995년에 이준 열사 기념박물관으로 개관하였다.

정부는 문화교류의 일환으로 청소년교류도 꾸준히 실시하였다. 일본과는 매년 20명을 교류하고 있으며, 1993년부터는 한국 청소년 100명이 방일하고 한국 국제교류재단에서 일본 청소년 60명을 방한 초청하기로 하였다. 1991년에는 세계 잼버리대회를 한국에서 개최하였고, 스리랑카, 네팔,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여러 나라에 44명의 청년 해외봉사단을 파견하기도 하였다.

청소년교류는 특히 최근에 대폭 증가되는 추세에 있어 1997년 한 해에만 9개국과 총 인원 400여 명을 교류하였다.

3. 학술교류

1992년에 한국국제교류재단이 발족하여 해외에 한국학에 대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시작되었다. 그 결과 1998년 말 50개국의 305개소(대학 및 연구 기관)에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어 있고, 7개국 33개 대학에 정규 한국학 교수직이 설치되어 있다. 또한 8개국 26개소에 ‘한국학 센터’가 설치되어 한국에 대한 학술연구 활동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외국인 장학생을 매년 초청해서 교육하고 있는데 1998년 말 76개국으로부터 529명이 초청되었다.

정부는 1979년에 한국관 시정 사업 추진 협의회를 설치한 바 있으나, 1995년에는 국무총리 직속으로 대외홍보위원회를 설치하여 관련부처 간의 조정 역할을 맡게 하고, 매년 각국의 교과서와 연감 등에 기술된 오류를 시정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1998년에는 50여 개 국가의 1천여 종의 교과서를 분석하였다.

한편 1996년 외무부의 세계의 창에 ‘한국 바로 알리기’ 란이 신설되었고, 서울시에서는 한국 바로 찾기 정보검색대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4. 체육교류

체육교류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1979년부터 체육교류협정을 체결해 왔는데, 1990년대에 18개국이 추가되어 1998년 말 58개국(6개국은 정부 간 및 올림픽위원회 간 중복)과 협정을 체결하였다.

우리 정부가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유치를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1996년에 한·일 공동 개최로 확정되었다. 월드컵 공동 개최는 한·일 양국 간 새로운 협력관계를 설정해 나가기 위한 계기가 되었으며, 이와 함께 정부는 동 대회가 세계 평화와 한반도 통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

또한 1997년에는 동아시아 경기대회가 부산에서, 동계 유니버시아드가 무주에서 각각 개최되었으며, 2002년 아시안게임이 부산에서 개최되기로 확정되었다. 그리고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게임과 1994년 히로시마 아시안 게임에서 황영조 선수가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딴 것은 길이 기억할 만한 일이었다.

정부는 대개도국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30-40개국에 대해 체육용품을 지원하는 한편, 수개국에 코치를 파견하였으며, 10여 명의 외국 코치와 선수를 방한 초청하여 왔다.

5. 홍보 및 관광진흥 활동

인터넷을 포함한 전파 매체의 발달로 한국의 실상을 정확하게 외국, 특히 외국 언론에 알릴 필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 언론인의 한국 방문 초청이 문화외교의 효과적인 방안이 되어 왔다. 1985년 이후 1997년까지 정부가 초청한 언론인은 아시아,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등 개도국과 동유럽 공산권 국가를 위주로 하여 80여 개 나라 출신 130명이었다. 한편 1990년부터는 ‘Facts about Korea’를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이외에 9개의 소수 언어로 번역하여 배포하고 있다.

정부는 재외공관을 한국 문화의 소개 센터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1997년에 재외공관 예술품 관리 규정을 제정하고, 외무부에 미술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4개의 문화원 이외에 32개 재외공관에 해외 홍보를 전담하는 공보관을 파견하고 있다.

관광진흥을 위해서 정부는 1993년에 대전 엑스포를 개최하고, 1994년을 ‘한국 방문의 해’로 정하였다. 아울러 1997년 말에는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 헝가리, 인도, 우즈베키스탄 등 6개국과 관광협정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2000년대에 관광객 7백만 명 유치에 백억 달러 관광 수입을 목표로 설정하여 2001년을 ‘한국 방문의 해’로 정하였으며, 국무총리 직속의 관광정책심의회를 설치하고 각 공관에 관광진흥대책위를 구성하게 하였다.

6. 지자체 및 민간외교 지원 활동과 기타

국제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지방정부 간 교류가 증가하고 그 비중도 높아지는 추세에 맞추어, 외무부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7개 시·도에 자문대사를 파견하여 이들의 대외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1995년에 부 내에 지방자치단체

외교지원단을 설치하였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1990년대에 들어와서 해외에 설치한 14개 사무소에 대해서도 그 설치와 운영 과정에 대해 지원하였다. 지방자치단체 간 자매결연도 증가 추세를 보여 1998년 말에는 한국의 127개 지자체(16개 시·도와 111개 시·군·구)가 38개국의 321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었다.

외무부는 민간단체의 외교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법인과 사회단체의 등록을 받고 그 활동을 지원해 왔는데, 1989년 말 46개였던 법인이 1997년 말에는 123개로 증가하였다. 사회단체는 1993년까지 90개였으나 관련 업무가 1994년에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었다.

한편, 외교문서 보존 및 공개에 관한 규칙(1993년 7월)이 외무부령으로 공포되어 다음 해인 1994년부터 외교문서의 일반 공개가 시작되었는데, 1998년 1월까지 공개된 문서는 총 2,100건에 28만 6천 페이지에 달한다.

또한 PC 통신을 통한 외교정보 제공 서비스를 하기 위해 1995년에 외무부 세계의 창을, 1997년에 외무부 전용 인터넷 홈페이지를 각각 개설하였다.

제5절 2000년대 세계와 소통하는 우리 문화외교

1. 문화공동위 및 수교기념행사 개최

세계 각국과의 문화교류를 강화하는 데 있어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국가 간의 합의나 정부 차원의 교류 프로그램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위해 각국과 문화협정 및 문화교류 시행계획서를 체결하고, 문화교류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하는 문화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한국은 2009년 3월 현재 아시아 지역 9개국, 미주 지역 5개국, 구주 지역 19개국, 아중동 지역 8개국 등 총 38개국과 문화공동위를 운영하며 한국 문화외교의 대상 영역을 확대해가고 있다. 문화공동위 운영 현황에서 볼 수 있듯, 우리 정부는 어느 한 지역에 편중되지 않은 폭넓은 문화교류를 기본 목표로 전세계에 걸쳐 고르고 광범위한 문화외교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각국과의 수교를 기념해 신규 창설 공관 지원 및 한국 문화주간 개최 등 다양한 계기를 통해 대규모 문화행사를 추진하였고, 성공리에 개최하였다. 2002년 한·중 수교 10년과 중남미 수교 40주년, 2003년 한·EU 및 한·캐나다, 한·페루 수교 40주년, 2005년 한·일 우정의 해, 2005년 멕시코 한인 이민 100년, 2007년 ASEAN+3(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한·중·일 3국) 정상회의 등 계기에 엄선된 문화단체가 파견되어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홍보하였으며, 이러한 문화행사에는 주재국의 정부 고위 인사, 정·재계와 언론, 문화계 주요 인사 등을 초청하여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우리 정부는 2006년 한·불 수교 120주년을 맞아 양국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확대·발전시키는 취지에서 ‘한·불 수교 120주년’ 기념행사를 추진하여 각각 ‘한국을 가슴 속으로(Corée au Coeur)’, ‘프랑스, 아자!’를 주제로 문화행사를 개최하였다. 또한 2006-2007년간 ‘한·영 상호 방문의 해’를 추진하여 2006년에는 영국에서 ‘Think Korea 2006’을, 2007년에는 한국에서 ‘Think UK 2007’ 행사를 개최하여 언론 및 양국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2. 월드컵 유치 및 체육외교 강화

체육외교의 목적은, 체육을 통해 전세계 시민들과의 친밀감을 높이고 역동적인 국가 이미지를 창출함으로써 보다 수준 높은 외교활동의 근간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 정부는 2002년 한·일 월드컵 및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등 주요 국제 체육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체육외교 차원에서 성과를 크게 거양하였다.

특히 2002년 한·일 월드컵은 한국과 일본의 20개 도시에서 열린 21세기의 첫 월드컵이자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된 월드컵이며 국제축구연맹(FIFA: Fédération Internationale de Football Association) 월드컵 사상 최초의 공동 개최라는 의미를 가졌던 대회로서 동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한국의 스포츠 강국, 문화강국으로서의 이미지를 전세계에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되었다.

특히 한국은 1954년 스위스 월드컵에 처음으로 참가한 이래 48년 만에 4강에 오름으로써 축구 강국으로서 전세계에 강한 인상을 남겼고 한국축구대표팀의 공식 서포터스인 ‘붉은악마’를 중심으로 한 온 국민의 길거리 응원 및 국민적 화합도 전세계인의 주목을 받았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은 단순한 체육 행사의 의미를 넘어 한·일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해 제고된 국가 이미지가 실질적인 정치·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되었다.

2002년도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 이후, 우리 정부는 체육외교를 가장 효과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활동이 국제 스포츠대회 유치라는 점에서, 각 지자체와 협력하여, 2007년 3월 대구가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이어 같은 해 4월 인천이 2014년 아시안게임 개최지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으며, 2009년 5월에는 광주가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에 성공하였다.

3. 문화 관련 다자 논의 참여

오늘날 문화의 중요성은 국제적 차원에서도 점차 새롭게 부각되고 있으며, 각국 문화의 소개와 교류는 물론 귀중한 가치를 지닌 문화재를 인류의 유산으로

영구 보존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 또한 갈수록 활발해지고 있다. 따라서 문화와 관련된 국제사회의 각종 논의에 활발히 참여하는 것은 한국 문화외교의 주요한 목표이자 정책 수단이 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문화 분야의 최대 국제기구인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를 통해 유·무형유산의 보호, 각국의 문화적 정체성과 다양성 보호 등에 관련된 국제적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한국의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방편으로 UNESCO 세계유산 등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2000년 ‘고창 화순 강화 고인돌유적 및 경주 역사지구’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고, 2007년에는 ‘제주도 화산섬 및 용암동굴’이 한국 최초의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으며, 2009년에는 ‘조선왕릉’이 한국의 8번째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세계유산 이외에도 ‘종묘 및 종묘제례악(2001년)’과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인 ‘판소리(2003년)’, ‘강릉단오제(2005년)’가 UNESCO의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결작선’으로 등재되어 국제적 가치를 인정받았고, ‘해인사 대장경판 및 제경판(2007년)’과 ‘동의보감(2009년)’ 또한 세계기록유산 목록에 올랐다.

한국은 UNESCO의 문화재 분야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2002년 UNESCO와 우리 정부 간 ‘북한 문화재 보존지원 신탁기금 공여국 협정’을 체결하여 UNESCO를 매개로 남북한 간 문화재 보존 분야에 있어 최초로 장기 사업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우리 정부는 2005-2009년간 ‘UNESCO 세계유산위원회(World Heritage Committee)’ 위원국으로 활동한 데 이어, 2008년 11월에는 ‘UNESCO 불법문화재반환촉진 정부간 위원회(ICPRCP: Intergovernmental Committee for Promoting the Return of Cultural Property to its Countries of Origin or its Restitution in Case of Illicit Appropriation) 출범 30주년 기념회’를 서울에서 성공리에 개최하여 동 분야 주요국으로서 위상을 확고히 다졌다.

정부는 UNESCO 참여를 통해 다자무대에서 한국 문화외교의 지평을 확대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2007년 제34차 UNESCO 총회에서 한국은 2007-2011년 임기의 집행이사국으로 당선되어 리더십 발휘를 위한 기회를 확보하였고, 2009년 제35차 총회에서는 2005년부터 추진해 온 아·태 무형 유산보호센터의 UNESCO 카테고리 2 기관 설립 승인이라는 성과를 거양하기도 했다. 향후에도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역할을 다한다는 목표 아래 UNESCO를 통한 한국 문화외교의 지평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4. 해외 박물관 한국실 설치 및 해외 한국학 증진

한국은 한국 문화유산의 전시를 통해 해외에서의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는 것이 문화교류의 활성화는 물론 한국 문화에 대한 국제적 이해를 증진하는 첩경이라는 인식 아래 해외 박물관 내 한국실 설치를 주요 정책 사업으로 지속 전개해 왔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한국국제교류재단을 통한 해외 우수 박물관 내 한국 문화재 상설 전시공간 확보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2000년 영국 대영박물관(The British Museum)에 한국실이 개관됨으로써 세계 3대 박물관에 독립된 한국실 설치가 완료되었고, 2000년 미국 시애틀 박물관(Seattle Art Museum)과 메트로폴리탄 박물관(Metropolitan Museum), 2001년 프랑스 기메 박물관(Musée Guimet), 2007년 미국 스미스소니언 박물관(Smithsonian Institution) 등 주요 박물관에 한국실 설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및 대한항공의 후원으로 2008년부터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Musée du Louvre)에서 한국어 오디오 작품 안내 서비스가 개시되었다.

해외 한국학 연구 지원은 주로 한국국제교류재단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외국 대학의 교수직 설치, 한국어 강좌 및 한국 연구 관련 강좌운영 지원, 한국 관련

연구활동, 학술세미나 개최, 한국 관련 논문 출판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다. 또한 한국과 한국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 도모를 위해 해외 교육자를 위한 현장 실습 등의 문화체험 행사가 지속적으로 개최되었으며, 특히 2000년도부터 한·일 간 균형잡힌 역사교육을 시행하기 위해 매년 20-30명 규모의 한·일 교육자 교류사업이 시행되었다. 매년 중·고교 사회과 교사 및 교육 관계자를 초청하여 강의 및 현장 시찰을 통해 상대국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역사교과서 문제 등 양국 간 현안의 원만한 해결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 문화외교 지평 확대 및 다양화

가. 쌍방향 문화교류사업

정부는 2000년대 초반부터 특히 아시아 지역 국가들을 중심으로 전파된 한류가 일방적 전달에 그치지 않고 호혜적 교류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우수한 외국 문화 소개를 위한 쌍방향 문화교류 활동을 추진하였다. 2006년 9월에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10개국 및 한·중·일 3개국 문화 예술을 소개하는 동아시아 영화교류전과 동아시아 공연예술제를 각각 개최하여, 동아시아 지역 전체의 친선과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새롭고 창의적인 시도라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2007년의 '아프리카 문화축전', 2008년의 '아랍 문화축전' 및 '실크로드(중앙아) 문화축전', 2009년의 '중남미 문화축전'도 큰 호응을 얻었다.

나. 재외공관 문화전시장화 사업

우리 정부는 재외공관에 수준 높은 예술품을 다양하게 지원하여 한국 문화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재외공관 문화전시장화 사업을 시행해 왔다.

이를 위해 1997-2008년까지는 미술자문위원회가, 2008년부터는 문화외교자문위원회가 철저한 사전 조사 및 사후관리를 통해 각 공관에 적합한 작품들을 엄선하여 전시하기 위한 자문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또한 2008년부터는 문화체육관광부와외의 협력 아래 국립현대미술관의 아트뱅크(Art Bank) 작품들을 재외공관에 대여하는 미술품 임차사업을 도입하였고, 2009년부터는 문화재청의 협력하에 국내 주요 공예대전에 입선한 우수 전통공예품을 재외공관에 임차 전시하여 전시 작품들의 다양화를 추구하기로 계획하고 있다.

다. 글로벌 이슈와 문화외교사업

정부는 국제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주요 글로벌 이슈의 해결에 관한 국내·외적 관심을 제고하여 성숙한 세계 국가를 지향하는 문화외교를 지향기로 방향을 설정하고, 2008년 그 첫 번째 과제로 ‘빈곤’을 주제로 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였다. 국민들을 대상으로 국·영문 슬로건을 공모하고, ‘파괴, 그리고 희망: 사진작가가 본 빈곤(Blight and Hope: Poverty Seen Through the Lens)’이라는 표제로 국내외 유명 사진작가 16인이 참여한 순회 전시회를 한국, 영국, 몽골에서 개최하였다.

라. 청소년교류

청소년교류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정부는 한국 청소년들에게 각국 청소년들과의 교류를 통해 다양한 문화를 직접 체험하게 하여 국제적 감각과 안목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일본, 중국, ASEAN 국가들과의 청소년교류사업은 지속적인 규모 확대와 더불어 활발히 실시되어 왔으며, 정부는 향후 중앙정부차원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차원의 청소년교류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마. 지자체 문화외교 업무 지원

정부는 ‘2002 광주 비엔날레’ 등 지방자치단체의 해외 문화교류 및 주요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재외공관을 통해 해외에 홍보하는 등 적극 지원하였다. 2008년 말 현재 한국 지자체와 해외 도시 간에 900여 건 이상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으며, 12개 광역지자체에 국제감각과 경험이 풍부한 국제관계 자문대사를 파견하여 지자체의 활발한 국제교류 활동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특히 자문대사들은 지자체의 투자 유치 활동, 수출 증대 및 대외교류 협력 강화를 위한 외국 기관들과의 양해각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 등에 기여하였다.

바. 국민과 소통하는 문화외교

정부는 민간 분야의 문화외교 지원과 문화 네트워킹 강화를 위해 2007년부터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에 사이버 아트 갤러리(www.cyberartgallery.co.kr)를 개설하여 국민들이 외교통상부 소장 우수 미술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국내 포털 사이트에 문화외교 인터넷 카페(<http://cafe.naver.com/culturalaffairs>)를 개설하여 문화외교에 관한 국민들의 이해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